

모진 세월 이겨낸 석탑의 위엄에 고개를 숙인다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저편 월출산의 봉우리가 보인다. 기기묘묘한 봉우리가 빚어내는 풍경은 이채롭다. 다소 흐린 탓에 월출산의 진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월출산을 배경으로 제 모습을 드러낸 석탑의 모습은 자아롭다. 가까이 다가가면 세상살이에 지친 이에게 품을 내줄 것도 같다. 멀찍이서 알현을 하고 잔잔히 석탑의 모습을 가늠해본다.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月南寺址 三層石塔) 보물 제 298호. 높이 8.4m 백제계 양식의 조각식 석탑이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비견되는,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백제계 석탑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 4월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상륜부까지 조립을 완료했고 이후 안정화 모니터링을 거쳐 2월 초 최종 복원이 끝났다. 석탑에는 모진 비바람과 세월의 더께가 군데군데 스며 있다. 시간의 풍화를 이겨내고 오롯이 자태를 드러낸 모습이 고적하다. 시간에 명멸되지 않는, 수다한 사람들의 역사에도 훼손되지 않는 석탑의 위엄에 저자거리의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다.

석탑이 자리한 곳은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다. 원래 탑이 자리한 인근은 마을이 있었다. 현재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석탑 주위에는 행한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마치 오래된 가요에 등장하는 '황성옛터'의 노랫말이 연상된다. "황성 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비록 월남사지와 황성 옛터의 배경은 다르지만 텅 빈 땅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애절한 감성을 선사한다. 눈앞의 빈 터와 노랫말 속 옛터는 쓸쓸하면서도 다소 애달프다. 황성옛터가 전쟁의 참화를 드러낸다면 월남사지의 빈 터는 마치 전설 속에 묻힌 땅을 환기하는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보물 298호...3년만에 최종 복원 공제 높이 8.4m 백제계 양식 조각식 석탑 해체때 청동유물·백제기와 발견 화제

눈앞의 월남사지 석탑은 월남사지라는 옛 절에 자리해 있었다. 현재 강진군에서 발굴 중에 있는데, 장방형의 면적은 어림잡아 수천 평은 돼 보인다. 저 땅에 깃든 남도의 역사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는 광맥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서사와 콘텐츠로 전이되리라.

월남사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즉 '월남사는 월출산 남쪽에 있는데 고

려시대 진각국사가 장건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삼층석탑이 있는 이곳이 월남사지로 추정된다. 다만 월남사가 언제 폐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여러 기록을 보던 월남사는 고려시대 진각국사가 장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월남사 삼층석탑은 13세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삼층석탑의 규모나 양식 면에서 부여의 정림사지석탑과 비견되는 면을 볼 때, 진각국사의 월남사 장건은 중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려초기부터 백제계 탑들이 등장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면이다.

유서 깊은 석탑의 내력을 떠올리며 탑 앞에 선다. 기단부터 탑신에 이르기까지 눈길을 준다. 날을 새워 돌을 쳐냈을 이름 없는 석공의 마음이 다가온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탑을 바라보는 오늘날 장삼이사에게까지 그 숭고한 마음이 전해오는 것 같다.

전설에 따르면 탑을 조각한 석공에게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 석공은 불사를 위해 떠나기 전 '불사가 끝나기 전까지 찾지 말고 집을 잘 지키고 있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석공은 집안일은 잊고 오로지 석탑 조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독수공방하던 여인은 오매불망 석공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다. 급기야 월남사를 찾아 몰래 그 모습을 훑쳐보았다. 그러다 석공의 이름을 불렀고, 급기야 소리를 들은 석공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뇌성이 울렸고 완성 직전의 석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여인은 돌로 변해버렸다. 석공은 돌로 변해버린 여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다. 남자는 슬픔을 뒤로한 채, 다시 석탑을 만들기 위해 정을 들었다. 그러나 주위에는 쓸 만한 돌이 없었다. 오랜 고된 끝에 남자는 돌로 변해버린 부인을 쫓아 석탑을 완성했다.

삼층석탑을 소개하는 글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는데 누군가 곁에 와 있다. 복원공사에 참여한 김정연 이도건설 대표다. 김 대표는 "전설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깃든 국가의 문화유산이어서 원형보존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다"며 "해체 작업 당시에도 석재를 부지포는 물론 흰색 천으로 감싸 원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석탑 3층 탑신석 하부에서 사리병으로 추정되는 청동유물이 발굴돼 화제가 됐다. 높이 22cm, 너비 11cm에 이른다. 또한 월남사지에서 백제기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거대한 문화재 한 복판에 서 있는 기분이다. 월남사지 복원이 끝나면 일대는 석탑과 함께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 같다. 오래 전 석공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의 파스한 온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에까지 이른다.



김은지 작 'How do we breathe'

평등과 공존을 위한 연대

강수지·김은지·이경옥 전, 12~25일 금호갤러리

1990년대 생 여성들은 본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여성혐오'라는 말로 직면한 세대이자, 이를 향해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세대다. 광주 지역 90년대 생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분노 이유를 살펴보고 분노 이후의 세상과 분노 너머의 것들을 상상해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12일부터 25일까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독립큐레이터 팀 '장동 플랫폼' (김소진·이하영)가 기획한 그룹전으로 강수지·김은지·이경옥 작가를 초대했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거두고 '평등'과 '공존'을 위해 연대할 수 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다.

"This is Our Green place: 분노 이후를 상상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기획됐으며 특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291만원·126%)했다.

조선대에서 현대조형미디어를 전공한 강수지 작가는 사진과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개인적 경험과 불완전한 사회가 맞닿는 지점을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대를 주제로 한 기존의 흑백 사진 작업과 함께 도자기를 부수고 그 파편을 다시 엮어 만드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은지 작가는 '화합'과 '함께함'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겹겹이 쌓아올린 색으로 완성된 추상 작업을 통해 여성들이 연대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전남대와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경옥 작가는 여성들이 가진 에너지와 생명력을 다양한 작품으로 보여준다.

14일 오후 2시 작가와의 대화가 열리며 15일 같은 시간에는 에세이를 써보는 '분노는 나의 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페미니즘 대학' 참가자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이 여성학과 여성정책을 다루는 전문과정 '전남 페미니즘 대학'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 12회 강좌로 4월 24일 개강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7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페미니즘의 역사를 다루는 사상사, 젠더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인식론, 성별화된 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젠더체계(이주여성, 노동, 몸) 등이다.

제주대 백영경 교수,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 건국대 윤갑지영 교수,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전은재 기자 ej6621@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남사가 있던 월남사지(月南寺址).



복원된 강진 월남사지삼층석탑.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 올해의 문제소설' 출간

2019년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 가운데 한국현대소설 학회가 선정한 문제작들을 엮은 '2020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이 출간됐다. 소설작품들이 표현해내는 역동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시대적인 징후를 읽을 수 있는 작품들로, 2010년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회고와 앞날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

작품집에는 모두 12개 소설이 실렸다. 각각은 2020

년대를 향한 목직한 예고의 작품들로, 저작권과 관련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던 윤이형 소설가의 '버킷'을 비롯해 김금희 '기관'의 탄생', 김사과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 손보미 '밤이 지나면', 최은미 '보내는 이', 최은영 '아주 희미한 온도' 가 눈에 띈다.

또한 '오물자의 출현' (강화길), '신세이다이 가옥' (박민정), '동경 너머 하와이' (박상영), '아카시아 숲, 첫 입맞춤' (백수린), '재일의 연인들' (정영수) 등 개성 넘치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연애, 결혼, 가족 등 여러 형태의 사랑, 노년의 삶, 우리 시대의 굴절된 심리뿐 아니라 여성적 유대의 연속과 단속, 사춘기 여성의 섹슈얼리티, 한국적 가족의 기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현대소설학회는 현대소설 분야를 전공하며 '한국의 현대소설'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구회로 현대소설을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 현대소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벤틀리관광호텔